

원자력 총력 홍보 체제를 확립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지난 97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어려운 한해였다. 외환 위기에서 비롯된 IMF 지원 체제는 우리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고를 불러일으켰으며, 새해에도 그 여파가 지속되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에너지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산업을 둘러싼 주변 여건 또한 새해에도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원전 지역의 보상 문제와 함께 후속기 건설과 관련된 반핵 단체의 선동 및 가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에 따른 지역 민심 달래기 공약 등 지역에서의 원전 반대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북한·대만간 방사성 폐기물 이전 문제 등 국제적인 사안으로 인한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도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의 경제 위기와 함께 해

외 의존도가 높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에너지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등 원자력 홍보를 위한 많은 기회 요인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이와 같은 장애 요인과 기회 요인을 적절히 활용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총력적인 홍보 체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21세기 원자력 산업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홍보활동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대

그동안 원자력 민간 홍보 주체로서 새로운 홍보 기법의 개발 등 원자력 홍보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써온 한

국원자력문화재단은 이제 보다 성숙된 체계를 갖추고 그동안 축적해 온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원자력 홍보 역량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것이다.

먼저 원전 지역의 홍보 강화를 통해 입지 확보 등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지역원진회 등 원자력 진흥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전개로 지역에서의 홍보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차세대 대상 홍보 활동의 다양화 및 초·중·고교 교과 과정 개편 연구 및 보강을 통해 중장기적인 원자력 이해 증진 기반을 구축하는 등 대국민 원자력 홍보 활동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대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국민이해 및 지역홍보활동 강화

원자력의 이해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한 신규 사업과 홍보 기법을 끊임없이 개

발하는 한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체제로서 변모하는 사회 여건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써 나갈 것이다.

정책 수립 관계 인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로 원자력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권역별 원자력 홍보 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홍보 활동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며, 이동 전시용 원자력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역 과학관과의 연계 전시 홍보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원자력 공개토론회」와 세미나 등 이벤트성 문화 행사를 적시에 개최하고,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원전 시찰과 강습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평생 교육원 원자력 강좌 개설, 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자력 강사 파견 등 원자력 교육 홍보 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지방 자치 시대의 변화된 여건에 맞춰 각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홍보 기법을 도입하여 원자력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려 나갈 것이다. 특히 원자력 시설 입지 확보를 위한 지역 협력의 강화를 위해 원전 지역의 친원전 단체 결성을 확대하고, 지역 협력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지역에서의 원자력 이해 기반을 확대하는 데 더한층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또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 모임」 등 여성

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 노래 자랑 대회, 초·중·고생 사생 대회, 백일장 등 다양한 지역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사회와 밀착된 원자력 문화 공간을 넓혀 나갈 것이다.

원자력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제고

교원, 근로 청소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 및 우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 학습회와 청소년 원자력 캠프, 중등 교사 워크숍 등 교육 문화 행사를 활성화하고, 우수 장학생 선발과 대학생 원자력 논문 공모, 중·고생 작문 공모 등 장학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원자력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자력 교육용 영상물, 월 차트, 홍보 만화책 등 각종 교육 자료를 제작·보급하는 한편,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를 대여하여 실생활 속에서 방사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선 및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원자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중·고교 교과 과정에 대한 연구 및 보강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이를 위해 교과서에 대한 정책 수립과 각종 연구 개발자, 교과서 집필진 등 다양한 각계 전문 인

사들에 대한 이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홍보역량의 내실화로 새로운 도약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 5년간의 축적된 홍보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홍보 기구로서의 홍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원자력 문화 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특히 지난해 수립한 「21세기 원자력 문화 진흥을 위한 원자력 중·장기 홍보 계획」에 의거하여 원자력 홍보 주체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확립하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재단의 비전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전직원이 홍보 전문 요원으로서 다양한 홍보 기법 및 능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사내의 교육 훈련에 힘써 나갈 것이다.

또한 원자력 관련 기관 홍보 담당자들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홍보인 양성 전문 강좌」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

98년에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21세기 국가 경제 발전 및 국민 생활 안정에 원동력이 될 원자력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 기반 확충과 지역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전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